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일보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The Good Developer GH

1988년 8월 8일 창간 제9721호 안내 031-250-3333 kyeonggi.com 음력 9월 3일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스트레스·우울… '마음의 병' 앓는 도민 많다

심층기획 뉴스초점

70%는 생활 속 건강관리 미흡
코로나 장기화 심리적 불안감
건강 적신호… 道 "지원 고민"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조차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스를 느끼고 우울 증상이 있는 경기도민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도민 정신건강을 위한 각별한 주의는 물론,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도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민 건강생활실천율은 평균 32.4%(2019년 32.5%, 2020년 29.9%, 지난해 34.7%)다. 도민 10명 중 단 3명만이 건강생활실천을 하고 있는 셈이다.

건강생활실천은 개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고자 취하는 행동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비롯해 균형 잡힌 식습관·필수적인 예방 접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도민들은 일상생활 속 기본적인 건강관리도 실천하지 않고 있어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지표로 분류되는 스트레스 인지율(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우울감 경험률·우울증상 유병률 분야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 도민의 심리적 안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실제 지난해 기준 도민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8.1%로 전국 17개 시·도 중 3위에 달했다. 또 다른 정신건강 지표인 우울감 경험률은 7.1%(전국 평균 6.7%), 우울증상유병률은 3.6%(전국 평균 3.1%)였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도의 '정신건강' 사업을 지역보건사업 3순위로 분류했다. 3순위는 도의 결과가 전국 수준보다 나쁘거나 유사할 경우 또는 지난 14년간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경기연구원 조사에도 도민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심화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나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성우 인천성모병원 의무원장은 "건강은 도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청소년기부터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 프로그램 등 공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공하고,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을 아우르는 일상 속 건강증진 대안도 함께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신체활동 저하를 호소하는 도민이 많아 도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며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서도 보다 세심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사라기자 관련기사 3면

수능 D-50… 간절한 엄마와 아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0여일 앞둔 23일 수원특례시 유신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수능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의왕시 청계사에서 수험생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업증진을 기원하는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다. 김시범·윤원규기자

폐호텔 쓰레기 처리 1억 쏟는 양평군

수해로 주택 전파돼도 1천560만원 주는데…
물소리길에 수십t 방치 물의속
억대 예산 편성 '형평성 논란'
용문면 "집중호우로 발생해 집행"

양평군이 1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용문면의 한 폐호텔에서 내놓은 쓰레기 수십t을 처리키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10여년 간 운영이 중단돼 흉물로 전락한 폐호텔에서 나온 쓰레기 수십t이 물소리길에 2개월 가까이 방치돼 물의(본보 27일자 1면)를 빚고 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수해로 주택이 전파돼도 지원금이 1천560만원에 불과한데 폐호텔에서 나온 민간 쓰레기 처리에 억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흑천 물소리5길 옆에 위치한 용문면 파라다이스호텔(용문로 164번길)이 흑천 교량 위와 물소리길에 내놓은 쓰레기 수십t을 처리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최근 단독 입찰을 통해 처리비용 9천400만원을 주기로 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쓰레기는 지난달 8일 내린 폭우로 흑천이 범람하면서 호텔 지하가 침수돼 발생했다.

당시 호텔 지하를 빌려 쓰던 임차인은 해당 쓰레기를 흑천을 가로지르는 교량과 물소리길에 내놨다.

군은 해당 쓰레기가 수해로 인해 발생한 게 확인됐다며 군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선 재해로 주택이 전파되면 1천560만원, 반파되면 780만원, 침수되면 200만원 밖에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며 군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한 주민은 "운영하지 않는 폐 호텔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치우는데 1억원을 투입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군은 피해를 입은 주민보다 폐호텔이 더 중요하냐"고 반문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군의 결정에 대해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직자는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이 우려되면 군이 쓰레기를 치울 수는 있다"면서도 "군이 처리한 뒤 비용은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쓰레기를 버린 당사자에게서 회수하는 게 타당할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용문면 관계자는 "8월 집중호우 당시 범람한 물에 호텔이 침수된 게 확인됐다. 수해로 인해 쓰레기가 발생한 게 맞아 예산을 집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양평=황선주기자

"모든 노선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버스 업계 30일 총파업 앞두고
道, 2025년까지 완료 대책 발표

버스 총파업을 앞둔 경기도가 전(全)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는 경기도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보다 더욱 확대된 내용이다.

앞서 도는 2026년까지 시-군 간 운행 비수익·필수·공익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순차 추진하고, 시군 내 노선은 시장·군수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관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며, 지난 16일 출정식에 나선 데 이어 오는 30일에는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대책을 마련한 도는 시-군 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의 준공영제 도입 대상을 당초 200개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시 버스 업계의 혼란 방지를 위해 준공영제 도입 방식을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가 아닌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노극 도 교통국장은 "이번 확대 대책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와 시군 등과 머리를 맞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주체들과 지속해서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더 교활해진 '보이스피싱'… 어르신들 '속수무책' 7면

함께하면 든든 혼자하면 힘든 육아
· 인구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 운영
· 임신·출산·육아 교육 프로그램, 자조모임
· 수유실 설치지원, 임산부 배려 캠페인
심의필번호 제220404-중-1374378호
가족의 건강을 우선하는 가족보건의원
· (내과, 산부인과) 각종 예방접종, 진단서, 항체검사
· 공단검진, 채용검진, 보건증, 초음파, 위·대장 내시경
인구보건복지협회 | 경기도지회 가족보건의원
문의_031)256-4644~5
http://www.ppfk.or.kr